

南宋 郊壇下官窯 簡介[☆]

朱伯謙* 著
張南原** 譯

南宋 高宗 越標는 臨安(지금의 杭州市)에 도읍을 정하던 紹興8년(1138년)을 전후하여 궁정의 일상생활용 및 天·地·太廟 등 제사용 자기의 수요 충족을 위해 임안에 南宋官窯를 건립하고 자기를 생산하였다. 協眞의 《坦齋筆衡》¹⁾과 顧文薦의 《負暄雜錄》 기록에 의하면 “內窯”가 먼저 세워졌고 “郊壇下別立新窯”, 즉 郊壇官窯가 나중에 만들어졌다.

郊壇下官窯는 항주시 남부 江干區 開山·烏龍山과 桃花山의 사이에 위치한다. 자기를 만들던 공방은 두 산의 사이 정상부의 평지에 있고, 龍窯 2基는 각각 오룡산 서쪽구릉의 남쪽과 북쪽에 60m거리를 두고 위치한다. 요지 서쪽에는 八卦田이, 동북쪽으로는 남송대의 皇宮이 있었는데 요지와는 2km가량 된다.

교단하관요는 1930년에 발견되었으며,²⁾ 1956년에는 이미 노출되어 있던 오룡산 서쪽가마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다. 1985년 10월 남송관요의 연구를 위해 임안성 고고단이 오룡산 관요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을 실시하였으니 발굴 면적이 1,400㎡에 달하며 水飛시설, 성형실, 유약 입히는 곳, 초벌구이가마 등의 유구와 등요 1기가 노출되었다.³⁾

☆ 본고는 대학박물관협회 학예원회 제 2차 학술답사 일정 중 1999년 12월 15일 杭州에서 가졌던 朱伯謙 선생의 특강요지를 번역한 것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朱伯謙, 「談南宋官窯」, 『中國古陶瓷研究』, 創刊號; 『朱伯謙論文集』, 紫禁城出版社, 1990, pp.210-215를 참조. 이하 모든 註)는 역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 1925년 浙江출생.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副所長, 中國古陶瓷研究會 副會長, 浙江省考古學會 副會長, 南宋官窯博物館 名譽官長, 杭州市文物考古研究所 名譽所長 역임. 著作으로 『朱伯謙論文集』, 紫禁城出版社, 1990 외에 다수의 논문 있음.

** 梨花女大博物館 學藝研究員, 陶瓷史 전공.

1) “...中興渡江, 有邵成章提舉後苑, 號邵局, 袋古京遺制, 置窯于修內司, 造清器, 名內窯...”

2) 周仁, 「發掘杭州南宋官窯報告書」, 『國立中央研究院二十年度總報告』, 1931, p.136.

3) 南宋官窯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과제로서 異見도 있다. 주요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周仁, 「發掘杭州南宋官窯報告」, 『國立中央研究院二十年度總報告』, 1931, p.136; 譚巨岡, 「論官窯」, 『故宮季刊』 1卷3期, 1967, 臺北, pp.47-66; 荒井行雄, 「南宋官窯開業時期に關する一考察」, 『東洋陶磁』 卷1, 1973-74, pp.49-57; 阮平爾, 「南宋官窯新探」, 『越磁論集』, 浙江人民出版社, 1980; 沙孟海, 「南宋官窯修內司窯址問題的商榷」, 『考古與文物』, 1986年6期; 阮平爾, 「南宋官窯工藝承嗣三題」, 『江西文物』, 浙江人民出版社, 1991年 第4期; 李輝炳, 「宋代官窯瓷器」, 紫禁城出版社, 1993; 李民學, 「宋官窯論考」, 『文物』, 1994年 第8期; 李輝炳, 「修內司官窯的正名及相關問題」, 『故宮博物院院刊』, 1996年 第1期; 李輝炳, 「宋代官窯瓷器」,

1. 유적과 가마

작업장 유적에는 성형공방, 흙 걸음통, 초벌용 가마, 다듬고 施釉하는 곳, 도로, 배수구 등이 있었다. 성형공방은 작업장의 북부에 있으며 1개가 3개의 평평한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쪽방에서는 회전판을 사용하여 그릇을 만들던 물레가 1기 있었다. 공방에서 남쪽으로 2.5m 되는 곳에는 1개의 원형 揀泥池가 있다. 직경 3.93m, 깊이 0.44m이며 갑발과 석재로 쌓아 들레를 만들었다. 바닥에는 가는 점토가 가라앉아 있는데 그릇을 만들던 태토이다. 따라서 이곳은 수비(水飛)⁴⁾를 위한 것이며 태토는 수비된 후에 공방으로 옮겨져 성형에 사용되었다.

초벌구이용 가마는 흙 걸음통의 남쪽에 있다. 가마의 평면은 말발굽형으로 앞쪽에는 아궁이가 있고 가마 뒷쪽은 이미 파손되었으나 직경 1.5m의 소결층이 있다. 가마 앞쪽에서는 많은량의 초벌구이편이 발견되었는데 800℃전후의 저온에서 구운 것들이다. 성형된 기물을 건조시킨 후에 저온에서 1차로 소성하여 기물의 강도와 吸釉率을 증가시킨 후 다시 유약을 입혀 釉가 마른 후 굽고 또 그 위에 유약을 입혀 고온소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태토는 얇으며 유약이 두텁고 광택과 윤기가 마치 玉과 같은 고급 청자가 만들지는 것이다.

초벌가마의 남쪽에는 기물을 다듬고 유약을 입히는 곳이 있다. 실내에는 기물을 다듬는 물레 1기가 있고 그 뒷쪽은 파손되었지만 2개의 施釉 缸이 있으며, 주변에는 많은 기물잔편이 흩어져 있었다. 이들 잔편 가운데 일부는 유약이 입혀져 있고, 일부는 유약이 묻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다듬고 유약을 입히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浙江 지역은 강우량이 비교적 많으므로 작업장의 곳곳에는 배수구를 만들어 비가 내릴때 산에서 흘러드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발굴된 2호 龍窯는 작업장의 동쪽, 오룡산의 서쪽 기슭에 있으며 남쪽에 있는 1호가마와 60m 가량 떨어져 있다. 2호가마는 길이 37.5m, 폭 1.34~1.8m이다. 가마 안바닥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아 앞쪽에는 아궁이, 窯頭 바깥쪽으로는 작업대가 있고 뒷편에는 굴뚝부가 남아있다. 가마벽은 벽돌로 쌓아 築窯를 염두에 두었다.

紫禁城出版社, 1996年 第1期; 李德金, 『烏龍山南宋官窯址出土產品及燒制工藝』, 文物出版社; 陳元甫, 『烏龍山南宋官窯產品類型及分期』, 『中國

古陶瓷研究』第3輯, 紫禁城出版社, 1996; 李剛, 『宋代官窯探索』, 『東南文化』, 1996年 1期; 陳方曉·華雨農, 『南宋修內司官窯初論』, 『中文物報』, 1997年 1月; 沈岳明, 『修內司窯的考古學觀察』, 『中國古陶瓷研究』第4輯, 紫禁城出版社, 1997, pp. 84-92; 金志偉·金軍, 『再談南宋修內司官窯』, 『中國古陶瓷研究』第4輯, 紫禁城出版社, 1997, pp. 202-204; 李剛, 『修內司官窯質疑』, 『東方博物』第2輯, 浙江省博物館編, 杭州大學出版社, 1998, pp.122-128; 李輝柄, 『南宋官窯與龍泉青瓷』, 『東方博物』第3輯, 浙江省博物館編, 杭州大學出版社, 1999, pp.8-14; 陳元甫, 『也談修內司官窯』, 『東方博物』第4輯, 浙江省博物館編, 浙江大學出版社, 1999, pp.59-63 등이 있다.

4) 水簸라고도 한다. 물 속에서 태토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말한다.

2. 정교하고 아름다운 생산품

郊壇下官窯의 생산품은 비교적 풍부하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 碗, 盤, 盞, 碟, 杯, 洗, 盆, 鉢, 罐, 壺, 瓶, 鼎, 唾壺, 爐, 花盆, 장기관과 鳥飾罐 등이다. 2차 발굴로 수습된 瓷片 가운데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5,000여 건이었는데 그 중 碗, 盤 등 일상 생활용 자기가 80%를 차지하며, 향로, 병, 화분 등 祭器나 陳設用 자기는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요가 진설용 자기를 주로 생산했다고 하는 일부 견해는 근거가 없다.

교단하관요 청자는 제작이 정교하고 기형이 아름다와 그 가운데 碗이나 盞, 杯, 盤 등의 구연 5~6곳을 오목하게 깎고, 그 아래 측면기벽을 밖에서 안쪽으로 눌러 도드라진 線으로 장식하여 마치 한 송이 꽃이 핀 것처럼 만드는데 이를 葵口碗이라 한다. 越州窯와 오대·북송의 용천요 자기 가운데도 花形口緣의 완·잔 內底를 조각하거나 눌러 찍어 연발문양을 넣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1개의 원 안에 5개의 연발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중심에 1개의 연발이 있는데 둘레에 1줄의 선을 둘러 잔이나 완이 마치 한송이의 활짝 핀 연꽃처럼 보인다. 관요에서 발견된 몇 점의 오리모양 향로는 형상이 매우 사실적이어서, 목을 길게 뺀 입을 벌리고 있으며 눈에는 朱土를 발라 검게 나타냈는데 전체에 흐르는 청색의 釉調가 눈길을 끈다. 등 부분은 구멍 뚫린 뚜껑으로 이루어졌고 몸체에 향을 피워 향기가 피어오르도록 하였으니 조형성도 뛰어나다. 향을 사르기 위한 향로는 商周시대 銅器와 같은 鼎, 簋, 樽, 鼓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鼎모양 향로 가운데 어떤 것은 어깨 부분에 둥근 고리장식을 붙이고 다리에 짧은 線무늬를 돈을새김 하여 중량감을 더해주고 있다.<사진 1> 簋形 향로는 구연이 밖으로 외반되었으며 굽도 밖으로 말리며 벌어졌다. 동체 양측면에는 龍形의 둥근 고리를 장식하여 銅簋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꽃을 꽃기 위한 觚形瓶, 樽式瓶의 기면에도 짧게 도드라진 線文을 장식하였다. 기형이 단정하고 중후하여 남송 황실의 강한 崇古·復古 의지를 엿볼 수 있다.⁵⁾

남송관요에서는 瓷石⁶⁾과 紫金土⁷⁾ 등 두가지 원료를 사용하는데 산화연[氧化鉛]과 산화철[氧化鐵]의 함량이 비교적 높아서 태토가 灰色, 짙은회색, 灰褐色 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사용된 유약은 鈣鉀釉⁸⁾로 유가 투터워 흘러내리지 않고 유층도 일정하여 玉과 같은 질감이 난다.

- 5) 南宋의 定都 후 郊壇의 제례 상황을 설명한 《咸淳臨安志》 '郊廟'를 보면 郊壇을 건립하고 제사를 봉행하던 상황이 자세히 기록하는데 陳設된 祭器가 9,205개이고 天子의 행차 행렬이 12,120인에 달했다고 하며, 제기는 마땅히 銅器·玉器를 사용하나 부족할 때에는 방편으로 陶瓷器와 木器를 사용한다 ("...設祭器九千二百有五, 鹵簿萬二千二百有二十人, 祭器應用銅玉者, 權以陶木...") 하였다. 따라서 이때 사용되는 청자의 종류와 형태가 동기·육기를 본 떠 만들어졌을 것임은 당연하다.
- 6) 석영·운모가 주성이며 高嶺石·長石등이 함유된 광물. 다양한 광물을 함유하고 있어 그 조성비율에 따라 다른 성격을 띤다. 특히 자기의 투명도와 광택을 좋게하는 역할을 한다.
- 7) 철분이 많이 함유된 흙. 외관상으로는 土黃·土紅·暗紅등의 색을 띠어 胎土와 유약의 착색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비교적 저온에서 용융된다.
- 8) 칼슘성분이 많은 유약.

남송관요는 150년간의 조업시기 동안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생산했으나 하나는 태토와 유약이 얇은 자기이고 다른 하나는 태토는 얇으나 유약이 두터운 자기이다.

(1) 태토와 유약이 얇은 청자⁹⁾

A유형 청자는 B유형 청자에 비해 기벽이 두터우나 한번만 施釉하였으므로 유층은 비교적 얇다. 유색은 靑灰色이 주를 이루며 米黃色이 그 다음이다. 대부분의 자기는 전체를 시유한 후 支釘¹⁰⁾을 사용하여 받쳐구워 굽 안바닥에 받침 흔적이 남게 되었는데<사진 2>, 그 자국은 汝官窯¹¹⁾ 支釘에 비해 거친 편이다. 支釘 흔적은 3개 또는 5개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맑게는 9개 짜리도 있다. 지정을 사용하여 번조하는 자기는 바닥을 넓고 두텁게 만든 예가 많으므로 圈足的 단면을 보면, 굽 안바닥이 바깥쪽 기벽보다 두텁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몇몇 기형들에서는 굽이 높고 크게 만들어진다. 기벽이 비교적 두터운 罐이나 壺 및 觚式·尊式의 병을 구울때에는 점병(墊瓶)¹²⁾을 받쳐 굽게 되는데 이 경우 굽 접지면에 유약이 안 묻은 1줄의 둥근 선 흔적이 남게된다.<사진 3>

(2) 태토는 얇고 유약이 두터운 청자¹³⁾

B유형 자기의 특징은 A형식에 비해 기벽이 얇은데 특히 碗·盤·洗·碟·杯 등의 구연부는 특히 얇아서 어떤 것은 두께가 1.0mm이하로 종이처럼 얇은 경우도 있다. 태토 위에는 유약을 두텁게 시유하여 마치 지방질이 쌓인 것 같다. 초벌된 기물 위에 여러번 유약을 입혀 유층을 두껍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층은 두께가 1.0~1.5mm 되는 것부터 가장 두터운 경우 2.5mm나 되는 것도 있다. 유색은 靑灰色이 가장 많으며 분청(粉靑)색¹⁴⁾, 밀랍(蜜蠟)색, 선피황(鱗皮黃)¹⁵⁾이 그 다음이다. 색이 부드러우며 광택은 마치 玉과

9) 이하 역자 임의로 'A유형'으로 칭함.

10) 요도구의 일종. 내화토로 만들며 굽 접지면을 깨끗하게 구워내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대부분 굽 안바닥에 받치게 된다.

11) 北宋후기의 관요. 1986년 上海博物館 조사에 의해 河南省 寶豐縣 清涼寺村에서 그 遺址가 발견되었다. 보풍현은 북송대에 汝州에 속했으므로 이곳 가마를 汝官窯라 한다. 궁정에서 口緣에 유약을 입히지 않고 거꾸로 굽는[覆燒] 定窯백자 사용을 불편히 여겨 여주에 命하여 청자를 굽게하였다. 열은 하늘 색 유약이 주를 이루며 대부분의 기물은 전체에 유약을 입힌 뒤 支釘 받쳐 구웠으나 간혹 無紋에 墊餅을 받쳐 구운 예도 있다. 조업시기는 眞宗 연간부터 徽宗 연간까지 약 20여년간(1086-1106)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河南省文物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址的調查與試掘』, 『文物』, 1989年 第11期 참조.

12) 그릇의 굽에 받치는 받침도구. 형태는 고리모양, 탁자모양, 접시모양, 원기둥모양 등으로 다양하여 墊環, 墊托, 墊碟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13) 이하 역자 임의로 B유형으로 칭함.

14) 주로 宋代 龍泉窯 청자 가운데 보이는 불투명하고 뾰얀 옥빛의 유색을 일컫는 말로서 우리나라 '粉

같다. 그 가운데 碗·盤·洗·盆·杯·盒 등 구연이 비교적 넓은 기물들은 그릇 안쪽에 고르게 두터운 유약을 입혔으나 罐·壺·瓶과 같이 구연이 좁고 몸체가 깊고 내면을 볼 수 없는 기물들 가운데는 안쪽에는 유약을 한 번만 입혀 유층이 얇고 외면에만 두텁게 시유한 것이 있다.

한편, 釉를 두텁게 입히게 되면서 번조 받침도구가 支釘에서 점병(墊餅)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¹⁶⁾ 번조시 가마재임을 하기 전에 먼저 등근 굽을 가진 기물이나 三足器의 굽바닥에 묻은 유약을 깎아낸 후 墊餅을 받치고 갑발에 넣어 굽게 되는데 번조후에 유약을 닦아내었던 부분은 짙은 회색 또는 회갈색으로 드러나게 되어 이른바 “鐵足”이 되는 것이다. 墊餅을 사용하여 받쳐 굽게 되면 기물의 무게가 굽 자체에 집중되므로 支釘을 사용할 때처럼 굳이 안바닥을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굽 단면을 보면 안바닥이 바깥쪽의 기벽보다 깊고 권족도 작아지며 직선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A, B 두 유형을 종합하면 서로간에 시기적인 차이와 형식상의 연관 관계가 있으며, 기종들 가운데 碗·盤·洗·瓶·爐 등 주요 기물도 형태와 제작방법이 다양하지만 I, II, III 형식으로 나누어 보면 이들 가운데는 先後관계가 있다. 洗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I式 : 넓은 구연, 등그스름한 동체, 높고 벌어진 권족. 유층이 얇고 支釘받침 번조.
- II式 : 구연이 비교적 작고 동체가 깊으며 기벽이 사선으로 벌어짐. 권족은 밖으로 벌어짐. 굽 접지면은 평평하며 유약이 두텁고 墊餅을 사용하여 번조.
- III式 : 벌어진 구연에 몸체가 낮고 기벽이 약간 사선으로 벌어짐. 권족은 작고 굽 접지면이 좁으며 유약이 두텁고 墊餅을 사용하여 번조.

盤의 경우도 I, II, III식의 盤의 몸체는 대형에서 소형으로, 깊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으며 圈足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밖으로 벌어진 형태로부터 수직으로 변화하였다. 굽 접지면도 등그스름하던 것에서 뾰족한 형태로 변하였고 유면도 얇은 것에서 두터운 쪽으로 변화하였다. 이 가운데 I 형식은 釉가 얇고 支釘받침을 사용하였으며

靑沙器에서 의미하는 ‘粉粧灰靑’과는 의미가 다르다. 용천요 분청의 명칭으로 남송 교단하관요에서도 용천요를 모방한 분청색의 청자를 제작하였다. 明代 高濂의 《遵生八牋》에는 “...官窯品格大率與哥窯相同, 色取粉靑爲上, 淡白次之, 油灰色之下也...”라 하였다. 여기서 哥窯는 용천요의 하나인데 남송 관요에서 매우 흡사한 자기를 만들어 내었으므로 그 구분이 어려워 학자들 간에는 그 제작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陳顯求 等, 『南宋郊壇官窯與龍泉哥窯的陶瓷學基礎研究』, 『中國古代陶瓷科學技術國際討論會文摘』, 中國古代陶瓷科學技術國際討論會組織委員會編印, 1982年, p.47.

15) ‘두렁허리[鱗魚]’라는 물고기가 먼 황색을 말함.
 16) 支釘처럼 못처럼 뾰족한 돌기를 붙인 받침 위에 그릇을 받쳐 올리면 굽 안 바닥에는 아주 작은 흔적만 남게 되므로 그릇을 정갈하게 번조할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돌기가 닿는 굽 안바닥면이 힘을 받게 되므로 굽 안바닥을 비교적 두텁게 만든다. 이에 반해 墊餅은 바로 그릇 밑에 받쳐 굽게 되므로 支釘번조에 비해 굽 바닥에 큰 흔적이 남게 된다. 참고로 ‘支’는 대상물을 ‘받쳐 올린다’는 의미가 강하며 ‘墊’은 ‘괴인다’, ‘갈다’의 의미가 강하며 중국도자사에서는 이 두가지 개념이 비교적 확실하게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II,III형식은 釉가 두텁고 墊餅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 지을 수 있다. I式은 모두 비교적 기벽이 두껍고 유약이 얇은 청자로서 밖으로 말린 圈足을 가졌으며 支釘받침으로 번조한 것으로 그 가운데는 여러차례 시유하여 유층을 두텁게 만들거나 墊餅을 사용한 예가 없다. 이와 반대로 III式은 기형이 작고 정교하고 우아한데 좁고 작은 권족에, 기벽이 얇고 유약은 두터우며 墊餅을 받쳐 구웠다. I式과 III式的 중간에 있는 2式은 상황이 달라서 기형과 제작 기술면에서 보면 전후 양식의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준다. 즉, 기형은 I,III형식의 중간에 해당되지만 기벽과 유약의 두께는 일정치가 않아 어떤 것은 1차만 시유한 것도 있고 때로는 2~3차까지 시유한 후 墊餅을 받쳐 구워 III식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유약이 두터운 것 가운데도 支釘을 받쳐 구운 경우가 있어서 시유와 번조받침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圈足도 I式보다는 작고 III式보다는 높으며 대부분이 밖으로 벌어졌고, 굽 바닥도 I형식의 일반적 특징인 평평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형식을 종합해 볼 때 기벽이 약간 두텁고 유약이 얇은 청자는 烏龍山 관요에서 먼저 생산된 것이며 南宋 중기에 이르면 유약이 두터운 형식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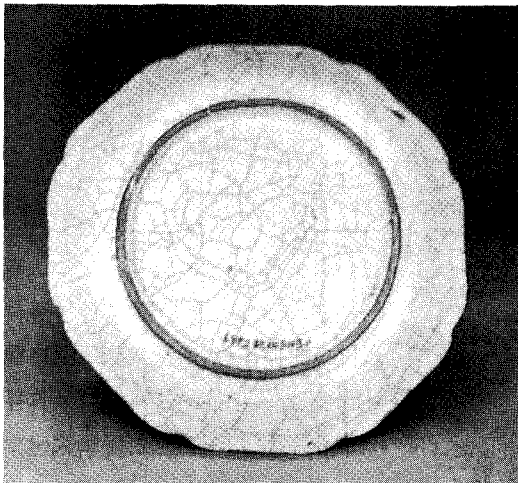
결국, 문헌기록에 “옛 북송의 제도를 따라 오롱산에 남송관요를 설립했다”고 한 것처럼, 오롱산 관요의 얇은 유약 청자는 태토와 유약의 배합방법에서 기형에 이르기까지 모두 汝官窯 및 北宋官窯와 흡사하다. 예를 들어 瓷石과 紫金土의 두가지 원료를 배합하여 기물을 만들어 태토가 곱고 기벽이 얇으며, 질은 회색이다. 靑釉로는 산화칼슘과 칼륨유약을 사용하여 유층은 뽀얗고 불투명하며 玉의 질감과 결을 갖고 있다. 품종이 풍부하며 밖으로 벌어진 높은 굽에 다수의 기물에 支釘을 사용하여 번조한 점 등 대부분이 汝官窯와 비슷하다.¹⁷⁾ 동시에 I式碗, I式盤, 三足盤, 樽式爐, 觚式瓶, 尊式瓶, 花口瓶 등 얇은 유약을 입힌 많은 청자들도 여관요와 북송관요 자기들과 상통한다. 따라서 오롱산 관요는 宋의 紹興8년(1138) 臨安에 도읍을 정한 후 옛 왕의 제도에 따라 건립한 것으로 남송 중기, 즉 1200년경 이전의 도자제작 기술을 채용하여 태토가 얇고 유약이 두터운 청자를 생산하게 된 것이며 이로써 이전의 북송관요는 생산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¹⁸⁾

17) 북송 휘종년간 1123년 황제의 國信使 일행으로 고려에 왔던 徐兢은 그의 《宣和奉使高麗圖經》 ‘陶爐’에서 “...惟此物最爲精絕, 其餘則越州古秘色, 汝州新窯器, 大概相類”라 하여 북송의 관요가 後代 남송관요는 물론 동시대 고려청자와 조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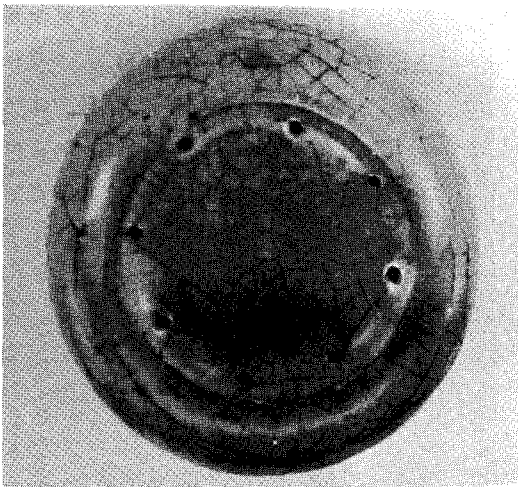
18) 남송관요의 설립시기를 주백겸은 항주에 도읍을 정한 것과 같은 때인 1138년으로 추정하는 것에 비해 李輝柄은 郊壇 설립시기가 紹興13년(1143)이고, 교단이 설립되기 이전 紹興 7년(1137) 5월, 9월과 紹興 9년(1139) 11월 등에 이미 3차에 걸친 대규모 祭典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1138년부터 1143년 사이 어느 시기에 국가 수요를 위한 도자공급을 위해 남송의 첫 관요인 이른바 “修內司官窯”가 세워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李輝柄, 『南宋官窯瓷器』, 紫禁城出版社, 1993, p.56.



<사진 1> 靑瓷香爐, 높이 12.4cm, 南宋官窯
靜嘉堂文庫美術館所藏



<사진 2> 靑瓷洗, 南宋官窯,
支釘받침 굽부분



<사진 3> 靑瓷花形접시, 南宋官窯,
墊餅받침 굽부분

〈原文〉

南宋郊壇下官窯簡介

朱 佰 謙

南宋高宗越標在紹興八年(公元1138年)建都臨安(即今杭州)前後，爲了解決宮廷生活用瓷和祭天、祭地、祭太廟等祭器的需要，在臨安建立南宋官窯，生產急需用的瓷器。根據叶寔《坦齋筆衡》顧文薦《負暄雜錄》的記載，先建“內窯”，後在“郊壇下別立新窯”，即郊壇下官窯。

郊壇下官窯位于杭州市南部江干區閘山烏龍山與桃花山之間。制瓷作坊在兩山之間壘地上，龍窯二條建在烏龍山西坡，一南一北，相距60米。窯址的西面是八卦田，東北面是南宋的皇宮，相距2公里。

郊壇下官窯發現於1930年，1956年對烏龍山西麓已暴露的一座龍窯進行了規模較大的發掘，總計發掘1400m²，發現撻泥池，成型之房，釉缸，素燒爐等遺跡和龍窯一座。

一. 遺跡和龍窯

作坊遺跡有成型之房，揀泥池，素燒爐，修坯上釉間和道路，排水溝等。成型之房在作坊遺址的北部，是一座三開間的平房。在南室發現了拉坯成型的轆一個。在工房南2.5米處有一個圓形的揀泥池，口徑3.93米，深0.44米，池用匣鉢和石塊砌成，池底遺構內細膩的粘土，經化驗分析是坯泥。所以這個池是揀坯泥土用的，泥揀成後，即送工房拉坯成形，布局合理。

素燒爐在揀泥池的南面，爐的平面呈馬蹄形，前面是火膛，爐的上部已被破壞，僅留直徑1.5米的燒結層。在爐的前方，發現大量素燒坯，說明這是個燒800度左右的低溫爐。坯件干燥後，在低溫爐燒一次，以增加坯件的強度和吸釉率，然後上釉，釉干後，再在素燒爐內燒一次，再上釉，使官窯青瓷達到胎薄釉厚，滋潤如玉的高標準。

在素燒爐的南面是修坯和上釉間，屋內裝有修坯的轆轤一個和上部殘破的釉缸二只，周圍遺留着大量坯件的殘片。這些坯件殘片，有的有釉，有的無釉，無疑是在修坯和上釉間殘破損的。

浙江雨水交多，所以在作房周圍作有排水口，下雨時，及時將山水排去。

發掘的2號龍窯建在作房東面烏龍山的西麓，南巨1號窯60米。2號龍窯長37.5米，寬1.34~1.8米。窯的底部保存較好，前有火膛和窯頭外的操作臺，後有排烟坑。窯牆用磚砌成，建築比較講究。

二. 精微的產品

郊壇下官窯的產品非常豐富，常見的有碗，盤，盞，碟，杯，洗，盒，鉢，罐，壺，瓶，鼎，唾壺，爐，花盆，象棋和鳥飾罐等。在第二次發掘獲得的瓷片中，能看出器形的一萬五千餘件，其中屬於碗、盤等日常生活用瓷的占80%，香爐，瓶，花盆等祭器和陳設瓷的占20%，所以有人說官窯以生產祭器和陳設瓷為主，是沒有根據的。

郊壇下官窯生產的青瓷，制作精細，器形小巧優美，有的碗，盞，杯，盤的口部有五個或六個凹口，凹口下的腹部壓內凹直線，形似一朵盛開的荷花。過去有人將這種碗叫葵口碗，我們在越窯，龍泉窯五代，北宋的這種花口碗，盤的內底，刻或印有蓮子。有的是一圈五課蓮子，有的中間一課蓮子，外圍一圈子，繫個碗或盞，形似一朵盛開的蓮花。在官窯發現的几件鴨形爐，形象逼真，鴨伸頸張嘴，眼珠烏黑，在通體的青釉中，引人注目。背部是鏤孔蓋，腹部焚香，香氣繚繞，藝術造詣限高，燃香用的香爐，常常做成商州銅器的樣子，如鼎式爐，簋式爐，樽式爐和鼓釘爐等，鼎式爐有的肩部貼鋪首，有的足面貼短扉稜，增加壓重感。簋式爐圓口外圈，圈足撇出，肩腹兩側裝龍形還耳，完全倣造銅簋之形式。插花用的觚式瓶，尊式瓶的外壁的面裝扉稜，器形端庄，隱重，由此證明南宋帝王崇古復古的意識是限濃厚的。

南宋官窯用瓷石和紫粘土兩宗原料做坯料，坯中氧化鉛和鐵的含量比較高，所以可以做成薄胎，胎中灰，深灰和灰褐色。所用的釉是鈣鉀釉，這種釉的特點是：釉厚而不流，釉層均勻有玉質感，釉層有開片。南宋官窯在長達150年的歷史中，先後生產了薄胎薄釉與薄胎厚釉兩種瓷器。

(一)薄胎薄釉青瓷。這種瓷器的胎比厚釉瓷的胎稍厚，胎外上一次釉，釉較薄，釉色為青灰為主，米黃色次之。

多數瓷器通體施釉，用支釘支燒，外底面有支釘痕，支釘痕普遍比汝官窯的粗。支釘以三個，五個的占多數，也有多是九個的。用支釘支燒的瓷器，底部需適當的加厚，器底比器壁厚，因此在底足的斷面上出現圈足外壁高，內壁低的現象。同時圈足常常外撇，以增加美觀。如此同時，少數器形高大，胎較厚的罐，壺和觚式，樽式瓶等用墊餅墊燒，足底一圈無釉。

(二)薄胎厚釉瓷器：這類瓷器的胎比前一類瓷器的胎更薄，尤其是碗，盤，洗，碟，杯的口腹部胎限薄，有的在1.0mm以下，真是到了壁薄如紙的程度。胎外上厚釉，釉層厚若堆脂。係採用多次素燒多次上釉的厚釉工藝上釉的。釉層厚度在1.0~1.5mm之間，最厚的達2.5mm。釉色以青灰色居多，粉青色，蜜蠟色和鱗皮黃次之，色澤淡雅，滋潤如玉。其中碗，盤，洗，盆，杯，盒等口較大的器物，內外均上厚釉，罐，壺，瓶，口小腹深內壁不容勿見到的瓷器，內壁上薄釉(即上一次釉)，外壁上厚釉。

由于釉層厚，裝坯用的窯具也有支釘痕開為墊餅。裝窯前先將圈足底部和三足器足底的釉刮去，然後裝墊餅，放在更鉢內裝窯燒成，燒成後無釉部分的坯面呈深灰黑褐色俗稱“鐵足”。採用墊餅墊燒後，坯體的勝重占集中在圈足上，器形設計者將底腹相接處的器壁加厚，底部減薄，圈足的斷面出現內壁高于外壁的現象，圈足矮而直。

薄胎薄釉和薄胎厚釉兩類瓷器，在器形上在着早晚演變和承袋關係。在器形的排比中，碗，盤，

洗，瓶，爐等主要器物都以爲成几型几式，而且在I, 2, 3式中明顯的存在着早晚演變關係。例如洗：I式的大口弧腹，圈足高而外撇，薄釉，用支釘支燒；II式口較小，深腹斜壁，圈足外撇，足底尖，厚釉，墊餅墊燒；III式撇口淺腹，腹壁斜度較小，圈足矮小，足底尖，厚釉，墊餅墊燒。又如I, II, III式盤，盤身由大變小，由深變淺，圈足由廣變矮，由外撇變直，足底由圓變尖，釉由薄變厚，其中I, II, III式爲薄釉]支燒，III式爲厚釉墊燒。

從上述例舉的分式中可以看到：I式都屬於胎較厚的薄釉青瓷，圈足廣而外捲，用支釘支燒，不見多次施釉的厚釉墊燒器；相反的在III式中，器形小巧優美，圈足矮小，薄胎厚釉墊燒；處于I, III式間的II式，情況大不相同，在器形與制作工藝上都存在承前係後的過渡現象。器形處在I, III之間，胎如釉厚薄不一，有上釉一次，二次到三次的，出現薄釉墊燒，厚釉支燒，厚釉墊燒等錯綜複雜現象。圈足比I式的矮，比III式的高，多數微外撇，足底以平面爲主，也有保持I式中常見的圓形。總之從型式序列中證明烏龍山官窯先生產胎稍厚的薄釉青瓷即南宋中期生產質量更重的厚釉古瓷。

袋故京遺制，在烏龍山建立南宋官窯

烏龍山官窯的薄釉瓷器從胎釉配方到器形都與汝官窯和北宋官窯相似，例如用瓷石和紫金土二元配方法配坯料，使瓷胎細薄，呈灰，深灰色等，青釉用 $\text{CaO} \sim \text{K}_2\text{O}$ 釉，釉層乳濁不透明，具有玉質感，有紋片。品種豐富，圈足高而外撇，多數器物用支釘支燒，這些都與汝官窯相似。同時I式洗，I式盤，三足盤，樽式爐，觚式瓶，尊式瓶，花口瓶等許多薄胎瓷的器形與汝官窯華北宋官窯瓷器相同。烏龍山官窯是宋王朝在紹興八年(公元1138年)建都臨安後，袋故京遺制以建立的，南宋中期則公元1200年以前制瓷技術提示，生產薄胎厚釉的珍貴青瓷。元來宋時官窯關閉停燒。